'컨셉트 연출'…내년 한국사회 주도할 트렌드는?

미래 예측담은 서적 잇따라 출간 눈길
한국 소비문화 흐름 '트렌드 코리아'
디지털 기술 전망 '디지털 트렌드 2019'
과학기술변화 다룬 '카이스트 미래전략'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에 유행하게 될 트렌드와 동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 예측을 담은 서적들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각 분야를 견인할 키워드와 경향은 기업이나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다.

특히 내년은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돼지의 해(기해년·己亥年)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해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렇다면 2019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한국 사회를 주도할까?

해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흐름을 예측해온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년 출간과 함께 폭발적인 방응을 이끌고 있다.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19'(미래의 창)는 한국 소비 문화의 흐름을 'PIGGY DREAM'(돼지 꿈)으로 요약한다. 10대 트렌드의 영문 카피 첫 음절을 묶으면 'PIGGY DREAM'이 되는 것으로, 기해년 경제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첫 키워드로 '컨셉트의 연출'(Play the Concept)을 든다. 원자화, 세분화하는 소비자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정체성과 자기 컨셉을 찾아가는 여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승전-컨셉'의 시대로 "마케팅이 아니라 컨셉팅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1인 미디어와 1인 쇼핑몰 등 혼자 하는 사업이나 세일즈를 뜻하는 '세포 마켓'(Invite to the Cell Market)의 성장도 예상됐다. SNS를 기반으로 한 개별 크리에이터들은 1인 미디어에서 '1인 마켓'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조류가 미래로만 향해 있는 것은 아니다. 눈을 돌리면 온통 새로움이 넘쳐나는 세상에 소비자들은 오래된 골목길을 찾고 자취를 감춘 LP판을 꺼내 들거나 추억의 전자오락실 게임에 열중한다. '레트로'가 과거의 재현이라면 '뉴트로'(Going New-tro)는 과거의 새로운 해석이다.

디지털 기술의 전망과 흐름을 최신 동향과 함께 소개하는 '디지털 트렌드 2019'(책들의 정원)는 2019년 디지털 기술의 전망과 흐름을 담고 있다.

디지털 전략 컨설턴트 연대성이 펴낸 이 책은 국내외 디지털 기술이 어느 지점에 다다랐는지, 디지털 트렌드의 전반적 흐름을 소개한다. '웹(Web)에서 앱(App)으로, 앱에서 봇(Bot)으로' 중심축이 변화 중인 디지털 시장을 상세히 분석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거쳐 오는 지를 조명한다.

무엇보다 책에는 기술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접어 두고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디지털 에이전트의 시대', '콘텐츠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플랫폼 전쟁 2라운드'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자나 마켓터보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흐름을 바라본다.

"인공지능이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Megatrends)로 자리 잡은 가운데, 챗봇(인간과 대화하는 AI)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영역 중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다. 현재로써는 인공지능의 얼굴마담은 챗봇이다. 평소 우리가 체험 가능한 인공지능 역시 챗봇이 주를 이룬다. 인터넷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책에는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세계 최고 디지털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과 국내 디지털 시장 선도 기업들과의 인터뷰 등 풍성한 볼거리도 담겨 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김영사)도 광범위하게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책이 제언하는 모든 논의와 전략의 기본 정신은 "출발점도 종착점도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과 경제, 권력을 중심에 놓은 전략은 자칫 사람을 배제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빅테이터를 해석하고 할 일을 결정하는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지휘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인간은 인공지능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아바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이처럼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변화와 전망을 담고 있지만 기저에는 '사람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사유와 시야를 제공한다.

경제와 소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년 동향을 전망한 책도 있다. '2019 트렌트 노트'(북스톤)가 바로 그것으로, 책은 우리 삶의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다음소프트 연구원 박현영과 신수정이 쓴 책에는 변화의 물결을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 조명한다. 근무시간 단축, 주거공간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 휴식과 여가의 변화 등을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 환상곡으로 만나다

채동선 오케스트라 연주회
7~8일 보성 문예회관 등서

지휘자 금노상

소프라노 김선희

'태백산맥'을 환상곡으로 만난다. 새롭게 창단된 채동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오는 7~8일 오후 7시 30분 각각 보성문화예술회관과 채동선음악당에서 '벌교 백년의 소리' 연주회를 연다.

채동선실내악단(단장 김정호)이 주최·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후원한 이번 공연은 '그리워', '망향' 등을 작곡한 벌교 출신 작곡가 채동선(1901~1953)을 기리고 내년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문석 작곡가가 만든 '태백산맥환상곡'을 초연한다.

지휘자 금노상이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박윤경이 협연한다.

주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무대의 문을 열고 첼리스트 박지원과 함께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가단조 작품번호 33'으로 호흡을 맞춘다. 바리톤 이광일이 지휘자 금노상의 아버지 금수현 작곡가가 만든 '고네'와 채동선악극 중 '나의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작품번호 26' 등을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선희가 '고향'과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시아무용단 '히어 데어' 연습 모습.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아시아무용단 '강강술래'로 화합의 무대

6~7일 아시아문화전당 '히어 데어' 공연

아시아 무용수들이 '강강술래'로 특별한 화합의 무대를 펼친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대만, 라오스, 베트남, 인도, 한국 등 8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무용단의 '히어 데어(HereThere·여기 거기)' 공연이 6~7일 오후 8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2에서 열린다.

아시아무용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5년 창단된 아시아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 아시아에 퍼져있는 원무(圓舞) 중 하나인 강강술래를 빌려 아시아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각국의 다양성을 풀어낼 예정이다.

아시아 8개국 17명의 무용수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아시아무용단 안애순 예술감독과 황수현 리허설 디렉터의 지휘 아래 지난달 10일부터 공연 연습을 해왔다. 김재리씨가 극작술 연구를 맡고 김기영씨가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전석 1만원.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80년 오월 연극 '애꾸눈 광대' 내일 국회 무대에

80년 오월을 무대로 한 연극 '애꾸눈 광대-어머니의 노래'가 오는 6일 오후 8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무대에 오른다.

이번 서울 공연은 세월호 유가족 등 단체관람 문의가 쇄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 관람객이 함께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기획된 '애꾸눈 광대'는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이지현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3년 초연을 시작으로 6년째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올해는 '어머니의 노래'를 부제로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낸 우리네 어머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방송 및 희곡작가 김원민이 새롭게 각색하고, 이행원(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대표)이 3년째 연출을 맡아 서서극 형식의 연극에 효과음악과 드라마 중심의 창작곡을 포함해 재구성했다.

공연에는 김갑돌·약장수 역에 이세상(지현), 어머니 역 김안순, 이지훈 역 이현기, 이장·신발장수 역 노희설, 영암댁 역 정경아, 형사 역 최용규등 광주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한편 '애꾸눈 광대'는 2013년 20회 등 광주는 물론 국내 주요 도시와 일본 오사카 해외공연을 포함 14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했다. 문의 010-4190-5180, 062-670-794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광석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공연 장면. 〈전남문화관광재단 제공〉

7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서 김광석 뮤지컬

'가객 김광석'을 다룬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에서 무료로 열린다.

이날 공연은 1970~1980년대 감수성을 선사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하는 시인' 고(故) 김광석의 음악세계를 조명할 예정이다.

'서른 즈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날들', '거리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김광석의 친숙한 노래로 무대를 채우며 순수한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 우정을 이야기한다. 문의 061-981-668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박종관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종관(59·사진)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임기는 2021년 11월 1일까지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연극계 출신 인사인 박종관 씨를 신임 문화예술위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연극계 출신으로 (사)예술공장두레 상임연출,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문체부는 조기숙 이화여대 무용학과 교수,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예술위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0년 11월 1일까지 2년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無 감미료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